

'15.5' 계획 건의 요점

중국공산당 제 20 기 중앙위원회 제 4 차 전원회의가 2025년 10 월 20 일부터 23 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고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및 협력상생의 새 국면 개척

전원회의는 '15.5' 계획 기간 중점 임무를 포지,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해 협력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것을 제기했다.

●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며 국제 순환을 확장하고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여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하고 공동 발전해야 한다.

● 자주적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무역 혁신 발전을 추진하며 램프 향 투자 협력 공간을 넓혀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 및 향촌 전면 진흥 착실 추진

전원회의는 '15.5' 계획 기간 중점 임무를 포지, 농업농촌 현대화를 가속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히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을 전당 사업의 중점으로 삼는 것을 고수하며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빙곤 해탈 공략 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확대하며 농촌이 현대 생활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추진함으로써 농업강국 건설을加速해야 한다.

● 농업의 종합생산능력과 질적 효익을 높이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강농·혜농·부농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역 경제 구조 최적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전원회의는 '15.5' 계획 기간 중점 임무를 포지, 지역 경제 구조를 최적화해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제기했다.

●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지역 주요 전략, 주체 기능구 전략, 신형의 도시화 전략의 협동 효과를 발휘하고 주요 생산력 배치를 최적화하며 중점지역의 성장 거점 역할을 잘 발휘해 우세 상호 보완, 고품질 발전의 지역 경제 구조와 국토 공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지역 발전의 균형성을 강화하고 지역 협동 발전을 촉진하며 국토 공간 발전 구조를 최적화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의 도시화를 심화 추진하고 해양 개발·리용·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전민족 문화혁신과 창조활성화, 사회주의 문화 번영 발전 추진

전원회의는 '15.5' 계획 기간 중점 임무를 포지, 전 민족의 문화혁신과 창조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 문화를 번영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다.

● 의식형태 분야에서 맑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지하며 넓고 깊은 중화문명에 뿌리를 내리고 정보기술 발전 대세를 따라야 한다. 강대한 상상력 인도력, 정신적 결집력, 가치적 감화력,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문화강국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발양하고 실천하여 문화사업의 대변영을 도모해야 한다. 문화산업 발전을 다그쳐 중화문명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외교부:

일본 대만해협 무력 개입 시 결정타 안길 것

일본 수상 다카이치 사나에는 최근 "대만에 대한 중국 대륙의 무력 사용이 일본의 '존망 위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어 국회 질의에서 "해당 발언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부합되는바 철회하거나 취소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대변인 린검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일본 수상이 최근 국회에서 대만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로골적인 도발 발언을 하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엄중한 항의와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 후에도 여전히 집착하며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우의 잘못

된 언행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정신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며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중국의 핵심리익에 도전하며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본이 감히 무력으로 대만해협 상황에 개입한다면 이는 친략행위가 될 것인바 중국은 반드시 정면으로 맞서 결정타를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운반선 건조 분야에서 중국 조선사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 선박들은 모두 계약 기간보다 앞당겨 2024년부터 차

/ 국제방송

[시사종술]

미국 련방정부 '폐쇄위기' 사상 최장 기록 마무리



11월 12일, 미국 뉴욕의 한 음식 배급소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

을 통과시켰지만 량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의료 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 근본 원인은 량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폐쇄위기'를 이용해 각자의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려 했을 뿐 민중이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피면시키기 위해 '폐쇄위기'를 종료시킬 방법을 생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중은 '폐쇄위기'의 무거운 대가를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 미국 N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트럼프정부 취임 약 10개월 동안의 성과에 실망했다고 답했으며 정부가 경제 관리 특히 인플레이션과 높은 생활비 대응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신문》이 얼마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민중은 미국이 심각하게 분열되었다고 인정했으며 응답자의 66%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혀 미국 민중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기 미래와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났다. 《정치신문》은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정서는 국가 정치 랭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면서 응답자의 59%가 미국 정치 랭극화가 5년전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인정했다.

미국 의회 예산공관은 6주간의 '폐쇄위기'가 미국에 약 1,100 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했다. 칸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제리 모란은 정부 '폐쇄위기'가 미국 유권자와 경제에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위험 신호 즉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동반자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표명했다.

/ 신화넷

중국선박그룹, 한국 선주에 7 번째 자동차 운반선 인도

중국선박그룹 산하 광선국제(廣船國際)가 한국 H-LINE 해운을 위해 건조한 7 번째 자동차 운반선이 11일 광주 남사에서 인도됐다. 이 선박은 8,600 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이중 연료 자동차 운반선이다.

앞서 해당 조선소는 H-LINE 해운에 7,000 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이중연료 자동차 운반선 4 척과 8,600 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이중연료 자동차 운반선 2 척을 인도한 바 있다. 이렇게 인도된 7 척의 선박은 모두 한국의 현대글로비스(물류회사)가 운영하는 선박들이다.

현대글로비스 상무 권치오는 "앞서 인도된 6 척은 모두 운항중이며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자동차 운반선 건조 분야에서 중국 조선사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 선박들은 모두 계약 기간보다 앞당겨 2024년부터 차

진지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 이번 정부 '폐쇄위기'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35 일간 지속된 기록을 깼다. 이로 인해 100 만명 이상의 련방 직원들이 임금 체불로 재정적 압박에 직면했고 심지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았지만 했다.

'폐쇄위기'는 또한 항공편 대면적 지역 또는 취소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공항 운영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미국 항공협회는 10월 1일 정부 '폐쇄 위기'가 시작된 이후 약 520 만명의 항공 여행객들이 항공편 지역 또는 취소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폐쇄위기'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의회 량당 지도자들은 서로 비난하면서 '책임 전가'에 몰두했다.

미국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비록 의회가 조달법안



11일, 광선국제가 한국 H-LINE 해운을 위해 건조한 7 번째 자동차 운반선이 광주에서 인도됐다.

례로 H-LINE 해운에 인도되기 시작했다.

11일 인도된 자동차 운반선의 이름은 '글로비스 트리니티' 호이다. 선박

길이 200 미터, 선폭 38 미터, 흘수(吃水) 9.2 미터, 항속 19 노트(节)의 규모에 천연가스/연료유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을 채택했다.

이 선박에는 항해, 기관실, 화물 등을 스마트화 관리를 할 수 있는 선진 스마트 선박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선체 선형(线型)을 최적화하고 주기관(主机) 배기ガ스 여열(余热) 회수 시스템을 장착하는 등 여러 에너지 절약 및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해 선박의 에너지 소비와 배출을 줄였다.

광선국제가 위치한 광주는 중국 3대 조선기지중 하나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광선국제의 자동차 운반선 러시 수주(订单)량은 약 40 척에 이르며 지금까지 23 척을 건조·인도했다. 이는 총 16 만 9,000 대의 차량을 운반할 수 있는 규모이다.

/ 신화넷

**勤善为本
吉福满门**



爱国
敬业
诚信
友善
富强
平等
公正
文明
和谐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